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개최 계획

서울시와 국제노동기구(ILO), 도시정부가 함께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 포럼」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8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
- 주제(안) :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 시티(Union City)**
 - ※ 유니온 시티 1) 도시차원의 노동기준을 수립, 노동자들의 존엄과 행복 보장
 - 2)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건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장
-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12일(수)
- 장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8층)
- 참석 :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해외 도시 시장, 노동전문가 및 노동조합, 시민 등 1000명

기조연설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

- ▶ 미국 경제학자, 미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첫 종신 행정관
- ▶ 버락 오바마 노동정책 설계자
- ▶ ‘균열알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저자

□ 개최배경

- 좋은 일자리도시 모델 정립 및 확산 논의
 -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온 시티 서울' 비전 공유
 - ILO 좋은 일자리 4대요건 토대의 일자리노동정책 논의
(①고용의 질 향상 ②노동권 보장 ③사회적 보호 ④사회적 대화)
- '17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성과 바탕으로 도시정부네트워크 구축
 - ILO - 도시정부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도시협의체」 구성
 - 「ILO 좋은 일자리도시 네트워크서울사무소(가칭)」 설치 추진

□ 국제포럼 논의 내용

- '좋은 일자리도시 모델' 확산
 - 노동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확대 및 실천전략 마련
 - 급변하는 노동현장에 밀착한 도시정부의 통합적 해결책 제안
- '좋은 일자리도시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강화
 - '좋은 일자리도시 모델'과 '서울선언'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협의체 구축
 - 도시정부간 정례적·지속적 정책 공유를 통한 국제관계 강화
 - 서울시의 선도적 일자리·노동정책의 글로벌 확산
- ILO - 도시정부 파트너십 강화
 - 「ILO 좋은 일자리도시 네트워크사무소」 개소 유치
 -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관련 연구과제 및 협치 사업 발굴·추진

2018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프로그램

○ 1일차 : 2018.12.11.(화) 11:00 ~ 20:00,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일시		세부 내용	
11:00 ~ 12:00	30'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 영 사 : 서울특별시장 ○ 축 사 : 고용노동부장관
	30'	기조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비드 와일 (경제학자, 美오바마정부 노동정책 설계자) - 주제 : 일터의 불평등과 격차
12:00 ~ 13:30	90'	○ 네트워킹 오찬 (서울시청 간담회장)	
13:30 ~ 16:55	205'	세션 1	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의 실천들 1
			○ 좌장 :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부 : 좋은 일자리 위한 도시의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80') ① 독일 함부르크 : 공공조달법 및 파견근로자 대우 ② 영국 런던 : 실제 생활임금은 이렇게 가능하다 ③ 프랑스 마르세유 : 주35시간 근무제, 사업고용협동조합 ④ 한국 서울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및 좋은 일자리 지표 ○ 질문 및 토론 (15')
휴식 (15')			
세션2	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의 실천들 2		
	○ 좌장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2부 : 도시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80') ① 오스트리아 빈 -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② 이탈리아 밀라노 : 비정규직 보호 정책 ③ 모로코 쉐프샤우엔 : 취약근로자 보호방안 ④ 미국 뉴욕 : 프리랜서 보호 조례 ○ 질문 및 토론 (15') 		
16:55 ~ 17:25	30'	○ 이동 (시청 → 성북동)	
17:25 ~ 20:00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박물관 투어 (35') ○ 만찬 (120') 	

○ 2일차 : 2018.12.12.(수) 9:30 ~ 17:00,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일시		세부 내용	
		세션 3	ILO 스페셜 세션
9:30 ~ 11:50	140'	노동의 미래와 '유니온 시티' ◦ 좌장 : 키엘 야콥슨 (브라질 노동당 노동국제자문관)	일의 미래와 ILO 100주년
		◦ 기조발표 (25') 한국지방정부의 '유니온시티' 모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패널 발표(100') ❶ 이주희 (이화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❷ 로날드 월 (요하네스버그 경제발전위원장) ❸ 이안 그리어 (미국 코넬대학 선임연구위원) 플랫폼노동자, 노동이사제, 유럽노동조합 관련 전문가 참여 추진중 ◦ 질문 및 토론 (15')	◦ 기조강연 (30')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 패널 발표 (95') ❶ 실뱅 지게르 OECD LEED 대표 ❷ 마르코 쿠스미우자야 루작도시학연구센터 이사 ❸ 손영우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국내노동조합 및 정부, 노동전문가 참여 추진중 ◦ 질문 및 토론 (15')
11:50 ~ 13:30	100'	◦ 네트워킹 오찬	
13:30 ~ 15:30	120'	도시정부 라운드 테이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의 역할 ◦ 진행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 기조강연 (30') 니시모토 토모코 (ILO 아태사무소장) ILO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안)
			◦ 도시정부 우수사례 발표 및 자유 토론 ◦ 「좋은 일자리도시협의체」 규약 의결 및 의장도시 선출 ◦ 「좋은 일자리도시 네트워크 서울사무소」 개소 제안
			◦ 참석도시 (국내외 20여개 도시 예정) 뉴욕, 함부르크, 밀라노, 빈, 마르세유, 요하네스버그, 쉘프샤우엔 등
15:30 ~ 16:00	30'	◦ 장내정리	
16:00 ~ 17:00	60'	폐막식	◦ 「좋은 일자리도시협의체」 발족식 - 공동합의문 발표 ◦ 폐막사

지난 100년 동안, 생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소득과 부의 증가를 수반했다. 그러나 소득과 부의 증가는 특정 국가와 특정 집단에게만 전유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된 소득불평등은 그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다.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부는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총소득의 5분의 1을 가져가는 것으로 현실화 되었다.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에서 지니계수를 5%에서 10% 정도 줄인다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부가 증가한 나라에서 조차 빈곤 축소는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발전하고, 부는 더욱 증가하고, 빈곤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듯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불평등은 물론 국가 간, 국가 내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 성별, 세대 간 불평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일의 불평등(inequalities at work)은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측면들이다. 임금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회사 테두리 안에 머물던 각종 기능을 밖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용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독립자영업 형태의 특수고용 종사자, 국내하청과 해외하청 그리고 잘 인식조차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 고용 등 다양한 고용관계들이 경제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는 지금,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이전과는 새로운 형태의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 및 작업방식의 출현을 자극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가 아닌 독립사업자 형태 계약방식을 취한다. 자본과 기업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노사 간 단체교섭과 같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킬 만한 영역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기업 비즈니스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시장 확장과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다. 21세기 전 산업으로 과급되고 있는 고용 털어버리기 현상은 이렇듯 자본이 추구하는 운동이자 타산(打算)의 결과인 셈이다. ‘사용자 없는 고용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모호한 고용’의 증가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와 도시들이 나서 자본과 기술 편향적인 발전에 저항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 정부가 전면에서 노동기본권을 향상하고, 사회 안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아직까지 노동과 고용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포용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빈곤과 차별 해소가 주요 화두로 대두됐다. 아마도 도시 정부의 역량 증진과 개입 필요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불평등을 넘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평등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사회 행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숙련형성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보장하는 데 있다. 더불어 일터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임금과 쾌적한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균열된 일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나 생활임금, 기본소득 그리고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같은 정책들이 세계 곳곳에서 도시 정부들에 의해 실험되고, 시행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는 뉴욕의 프리랜서 조레나 영국의 생활임금 사례가 소개 된 바 있다. 이러한 도시의 실험적 정책들은 ILO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ILO는 보다 많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일자리 추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의 노동·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치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노동존중특별시’를 공약하고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년 동안 도시의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 국가와의 협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세계의 각 도시들에게 ‘유니온 시티’(Union City)에 대한 지향을 제안해 본다.

‘유니온 시티’는 도시 정부에 특화된 노동정책 모델로 ‘노동존중 도시’를 의미한다. (1) 하나는 도시 차원의 보편적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의 존엄과 행복을 적정 수준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접근’이다. 도시 정부가 노동조건 제도화를 통해 노동환경, 노동시장, 임금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2)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바탕을 둔 ‘주체의 접근’이다. 도시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과 도시 정부 간 사회적 계약관계(social contract)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의 정책을 다른 도시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글로벌 수준의 관점에서 도시 간 좋은 일자리 정책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제1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2017.9)을 시작했다. 국제포럼의 목표는 도시 수준에서 ILO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강화하고 지역화 하는 것이었다. 서울을 ‘좋은 일자리도시’네트워크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한다는 취지를 담아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붙임 3]

지난 2017년 국제포럼은 서울시가 실천한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와 다른 도시들이 시행한 의미 있는 정책을 공유하며, 국내외 정책 입안자·실천가·전문가들로부터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장이었다. 도시수준의 노동·고용·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도시에서 이뤄진 관련 정책과 경험을 탐구하며, 나아가 ILO의 좋은 일자리 사업의 실천적 효과를 높이는 자리였다.

「2018년 제2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는 ILO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강화하고, 주요 도시 간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는 2019년 ILO 100주년을 맞이하여 ‘좋은 일자리 사무소(Decent Work Center)(가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의 ‘좋은 일자리’와 도시 정부의 노동모델로 ‘유니온 시티’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여러 도시들에게 제안한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서울시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 6일(수) (2일)
- 장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8층),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 주최 : 서울특별시
- 협력 : 국제노동기구(ILO)
- 후원 : 고용노동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노동연구원
- 참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노사발전재단
- 참석
 - 국제기구(9) :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 도시정부(5) : 뉴욕, 요하네스버그, 웨프샤우엔, 효고현, 세타가야구
 - 국제기관(6) : 런던 생활임금재단, 브라질 노동자당, 독일 도시학연구소 등
 - 국내기관(16)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노사단체 등



□ 취지 및 목적

- 국제단체 및 도시정부 간 좋은 일자리(고용, 노동권,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등)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시의 일자리·노동정책 성과 소개 및 확산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노동모델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정부협의체’ 구성, ‘서울선언’ 작성 및 발표
- 도시노동모델 확산을 위한 ILO와 도시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

□ 주요 프로그램

구 분	행사개요	장소	
9/5 (화)	전문가 테이블	· 도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적 공간으로 변혁될 수 있는가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3F)
	기자회견	· 박원순 서울시장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서울시청 간담회장2(8F)
	환영 오찬	· 포럼 참석 국내외 연사 30여명	서울시청 간담회장1(8F)
	개회식	· 환 영 사 : 박원순 서울시장 · 축 사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기조연설 :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3F)
	세션 1	· 좋은 일자리도시 - 고용	
	세션 2	· 좋은 일자리도시 - 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	
	노동현장방문	· 전태일 다리 및 기념상, 전태일노동복합시설	전태일 다리, 전태일노동복합시설
	환영 만찬	· 노동 분야 전문가 및 참석자 70여명	삼청각 일화당
9/6 (수)	세션 3	· 좋은 일자리도시 - 도시와 사회적 대화	서울시청 다목적홀(8F)
	세션 4	· 좋은 일자리도시 - 좋은 일자리도시로의 전환과 미래의 조우	
	도시정부 테이블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의 비전과 전략	
	폐회식	· 서울선언 발표	
9/4,7	문화행사	· 서울 문화 체험	경복궁, 청계천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

21세기 들어 지구 공동체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무한경쟁을 원리로 하는 극단적 시장주의(market fundamentalism)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없으면,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빈곤 노동층이 양산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되고 노동권은 퇴보하며, 사회적 보호는 약화되고 사회적 대화는 도전 받게 된다.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종속 변수로 사고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넘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출범 백주년을 맞아 '일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년 동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고용의 질 향상, 노동권 보장,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를 '좋은 일자리'의 전략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세계 각국의 노사정과 협력해 왔다.

이제는 노동정책 주체들의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책영역의 확장 뿐 아니라 정책주체의 혁신까지 포함한 정책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노동정책의 영역은 중앙정부에서 도시정부로 확장되는 추세이고 노사 및 시민사회는 그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부가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그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도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왜 필요하고 그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며 그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특히 노동정책이 수동적으로 집행되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노동정책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도시가 가진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표방하며 좋은 일자리 실현에 앞장서온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의 성과를 담아 세계 도시의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전략에 동의하며 이를 도시 차원에서 실천한다. 도시의 노사정이 국제기구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한 도시들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2. 우리는 도시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오늘과 내일의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3. 우리는 좋은 일자리의 기초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ILO 기본협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도시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등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안팎의 노동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4.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차원에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우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Decent Work City Network)'를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도시들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며 그 성과를 확산시킨다.
6. 우리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일의 미래가 재구성되는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선다. 고용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7. 국제노동기구는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결론에 깊이 공감하며,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 도시들의 좋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8. 서울시는 이번 포럼의 주최자이자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의 제안자로서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과 '서울선언'이 세계 도시의 노사정과 시민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2017년 9월 6일 서울에서 채택